

위·십이지장궤양 이야기 ①



박경남

소화기 내과 한양대학병원

1. 위·십이지장궤양의 개요

위궤양과 십이지장궤양은 본래 각각 독립된 두개의 질환으로 취급해야 할 질병이다. 그러나 이것을 묶어서 하나의 병으로 간주하는 것은 오래 전부터 관습처럼 되어 왔다. 그것은 위궤양과 십이지장궤양이 질환의 성립에서 치료에 이르기까지 대개 닮아 있기 때문이며, 두 질환을 일괄하여 소화성궤양이라고도 한다.

옛날부터 흔히 위산이 없는 곳에는 궤양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다른 뜻으로는 위산이 있는 곳에는 어떤 조건만 주어질 경우 “궤양”이 생길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소화성궤양은 위장관의 어느 곳에서도 형성될 수 있겠으나 흔히 식도, 위, 십이지장

에 잘 생긴다.

위 및 십이지장궤양은 위액에 노출되고 있는 소화관 벽의 조직결손을 말한다. 조직결손의 깊이는 점막근관 이상이 된다.

소화성궤양의 발생빈도는 사체부검에 의 10~15%에서 볼 수 있으며, 국내보고 및 상부소화관 내시경 시술환자의 6.8%~19.3%로 발표되고 있다.

사람은 언제 어디에서고 궤양을 발생시킬 수 있는 많은 요인과 접할 수 있다. 특히 십이지장궤양은 지역, 인종, 직업, 시간의 변천 등에 따라서 발생빈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몇해 전부터는 위궤양보다는 십이지장궤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근래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의료보험의 확대 실시, 건강에 대한 국민의

위·십이지장궤양은 위액에 노출되고 있는 소화관 벽의 조직결손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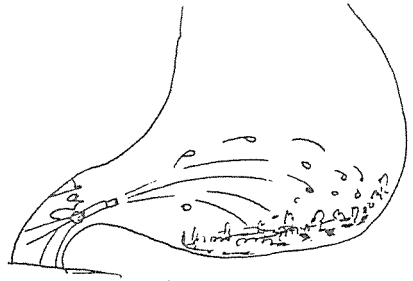
관심 증가, 그리고 소화기 내시경검사에 대한 인식 및 신뢰도가 높아짐에 따라 소화성궤양 중 십이지장궤양의 발견빈도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식생활의 변화, 사회의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환경변화 및 스트레스 등에 의한다.

소화성궤양의 연령분포를 보면 위궤양은 평균연령이 50대에 가장 많고 십이지장궤양은 30대에 많다. 또한 소화성궤양은 여자보다는 남자에게 약 2배 이상 잘 발생한다. 궤양은 환절기인 봄철과 가을에 잘 발생하며 또한 재발도 잘 된다.

소화성궤양의 병태생리 중 위궤양의 발생기전을 보면, 위 배출(소화)시간이 늦어지거나 위운동이 잘 되지 않고 십이지장 내용물이 위점막에 역류하여 만성염증성 변화를 일으켜 이 상처를 받은 점막이 손상되어서 발생된다.

위점막 보호벽에 손상을 주는 물질로는 커피, 알코올, 담즙, 각종 약물(아스피린, 소염제, 부신 피질 호르몬 등) 등

위궤양은 위 운동이 제대로 되지않아 십이지장의 내용물이 위 점막에 역류, 상처받은 위 점막이 손상되는 것이다.



이다. 위궤양은 위산과다 분비와는 연관성이 거의 없다.

십이지장궤양의 병태 생리를 살펴보면 유전적 인자, 긴장·초조·불안감 등 스트레스, 흡연, 약물, 소화관 호르몬 그리고 위산분비 과다가 주요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한가지가 아니라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어난다.

2. 위·십이지장궤양의 원인

소화성궤양의 원인은 아직까지도 확실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궤양의 발생기전으로는 궤양을 일으키는 공격인자와 궤양을 방지하는 방어인자 사이의 불균형에 의하여 공격인자의 우세현상으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공격인자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위산이 있다. 또한 펩신과 같은 소화효소도 있다. 위산분비를 촉진하는 여러가지

요소들, 예를 들면 스트레스가 궤양발생에 큰 몫을 하는데 이 스트레스는 지나친 긴장이나 걱정 및 초조, 좌절, 불안, 공격적이고 소극적으로 사건을 대처하는 것 등이 요인으로 작용하며 육체 노동자보다도 정신 근로자에서 궤양의 발생률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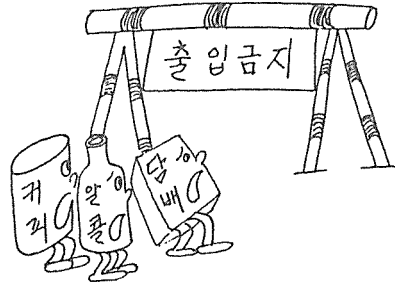
그리고 심한 화상이나 교통사고와 같은 외상, 쇼크상태, 겨울의 심한 추위 등의 스트레스가 뇌하수체 전엽호르몬의 분비를 항진시키고 이것이 또 부신피질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여 미란성위염을 유발한 후 점차 궤양으로 발전하는 것도 증명되고 있다.

이외에도 패혈증, 뇌졸중 및 대 수술을 받은 후 중환자실에 들어온 환자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다. 이 경우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여 보면 48시간 내에 75~100%의 환자들에서 위점막 손상을 볼 수 있으며 이들 중 일부에서는 출혈이 심하게 나타난다.

식사의 불섭생(폭음, 폭식)에 의한 위육체 노동자보다는 정신 근로자에게서 스트레스에 의한 궤양의 발생 확률이 높다.



폭음, 폭식, 알콜, 담배, 커피 등은 십이지장의 치유를 지연시키고, 재발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점막의 기계적 자극 등으로 특히 위의 소만부에 위궤양이 발생되기도 한다. 기호품중 알콜, 담배, 커피 등의 자극물 섭취가 궤양 치유를 지연시키고, 더욱 악화시키기도 한다.

특히 흡연은 위산분비를 증가시키며, 위 배출을 촉진시켜 십이지장이 위산에 노출되도록 한다. 또 궤양에서 분비되는 산을 중화시키는 중탄산염의 분비를 감소시키고, 혈류를 차단하는 등의 효과로 십이지장궤양의 치유를 지연시키고, 재발을 일으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에는 위점막 내에 헤리코박터 파이로라이라는 특수한 세균이 자라서 이것이 위점막의 염증을 일으키고 이 염증이 소화성궤양의 모지가 된다고 하며, 이에 대한 정립된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상이 위점막의 공격인자로서의 원인이 된다. <계속> ㉞